

주기도문에 대한 칼빈의 이해

「Calvin's Understanding
of Lord's Prayer」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2 월 일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신학연구과 조직신학전공

구 상 수

구상수의 卒業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김성영 김성영

審査委員 이은정 이은정

審査委員 장화선 장화선 J. Chang

審査委員 김성주 김성주 Gyeongkyu Kim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감사의 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삶 속에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신학의 바른 길을 가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준 김영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규 교수님께서 지난 삼년동안 개혁신학의 진수를 알게 하여 주셨음은 저에게 내려주신 크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의 논문을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글이지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부모님과 부족한 사위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장인 장모님, 사랑하는 아내, 아직 뱃속에 있는 우리 아가와 그리고 남양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도움이 되어주셨던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광교회 교우님들과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2월

구상수

차 례

I. 서 론.....	3
1. 논문의 동기와 문제제기	3
2. 연구목적과 방향.....	4
II. 본 론.....	6
A. 초판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	6
1. 기도의 규칙.....	6
1-1. 하나님을 주인으로.....	6
1-2. 겸손과 유익.....	6
1-3. 은밀한 기도.....	7
2. 기도의 두 부분.....	8
1-1. 간구.....	9
a. 합당한 기도.....	9
b. 기뻐하시는 기도	10
c. 우리의 필요.....	11
2-1. 감사.....	11
3.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	12
3-1. 명령.....	12
3-2. 약속.....	13

B. 칼빈의 기도핵심에 대한 발전내용.....	14
1.인간의 절망과 선한 것들에 대한 결핍.....	14
2.올바른 기도.....	16
3.대언자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8
4.하나님께 부르짖는 규칙.....	19
5.성자의 중보기도.....	19
6.기도의 지속성.....	21
C. 기도의 실천적 의미.....	22
D. 칼빈의 주기도문 해설.....	23
1. 우리 아버지.....	23
2. 주기도문 완성.....	30
III. 결 론.....	47

I. 서론

1. 논문의 동기와 문제 제기

칼빈은 주기도문을 다룰 때 주로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루었다. 칼빈은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생으로 세우시고 또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할 분으로 세워주신 (마17:5) 우리의 최초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규칙이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이었고(사11:2) 동시에 사람들을 위하여 위대한 모사로 주어졌다(사9:6; 참고, 사28:29, 렘32:19). 주께서 주신 주기도문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상관 될 수 없는 외부적인 것이나 이질적인 것을 주기도에 첨가할 수 없다.

또한 성경의 나타나는 모든 기도들 즉 여기저기에 사용되는 유익된 많은 기도들이 주기도의 요약적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비록 사용하는 말들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뜻이 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경건한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주기도와 관련 지워져야 한다. 이는 주기도문과 같이 완전한 기도는 없으며 더 능가하는 것은 더군다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과 사람자신의 행복을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기도에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가르치고 또 필요한 그것을 뜻하셨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다.¹⁾

칼빈은 주기도문의 성격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과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pp.182-183. (다음 각주에서 Inst.라는 약자로 사용하게 됨)

기도의 모습은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상실한 채 생활하고 있음에 자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연구목적과 방향 및 전개과정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주기도문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고찰해 보고자한다.

먼저 연구목적은 기도의 이해를 갖기 위하여 칼빈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택하였다. 그리고 논지의 목적은 칼빈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하고 있으며,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 간구의 여러 양식들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판)에서 기도의 의미를 찾는데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였으며, 신학적으로 깊은 해석의 내용을 논하고 있다. 이에 1536년판에서 그 중심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충하여 판을 낼 때마다 1536년판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밑그림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은 기도의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그 중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칼빈은 주기도문의 해설을 통하여 그의 건전한 사고와 신학이 거의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언급 되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죄용서와 보호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 되고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왜곡하기 쉬운 점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기도의 이해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또한 부요하신 아버지 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 할 때에 기도의 바른 이해를 찾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성도의 삶으로 부요함에 거하는 자로서 성도의 풍성한 삶 속에 나타나는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기도의 바른 의미를 찾았다.

II. 본 론

A. 초판에 나타난 기도의 이해

1. 기도의 규칙

1-1.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모든 선한 것들의 공급자이시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첫째 규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지각을 던져 버리는 것 우리의 자기 확신을 모두 내 버리는 것이다²⁾. 반면에 두렵고도 겸비한 자세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선지자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단 9:18-19).³⁾

1-2. 겸손과 유익

우리가 자신의 불충분함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와 우리 유익을 위해 정말 필요로 한다는

2) 크리소스톰은 롬1:23절에 대하여 첫 번째 책망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하나님을 찾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책망은 그들이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귀신이나 돌이나 어떤 나무토막같이 비천하게 격하시켰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로마서 강해, 송종섭역, 지평서원, 1990. p.64.)

3) Inst., p.155

것은 순수하게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마다 그로부터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겠다는 것이다.⁴⁾

겸손함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눅 11:2)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룩히 됨을 열정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로 억눌리고 짐진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로 가져가는 것이다.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로 그 부모에게 차근차근하게 가져가 털어 놓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곤경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울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박차와 채찍과 같은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도록 만드는 큰 유익이다⁵⁾

1-3. 은밀한 기도

기도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는 것, 또는 기도 자체는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신 (롬 8:27)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쏟아 부어진, 마음속의 어떤 감정이라 해야 옳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최고의 규칙을 명하여 주신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마 6:6)

4)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위치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것이 신령한 자의 기도이다.(김홍전, 기도에 대하여, 성약출판사, 2000. p.46)

5) Inst., p.156.

의식자들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식적인 기도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은밀한 그 무엇으로서, 주로 마음속에 그 가치가 있으며, 또 떼지어 몰려오는 근심걱정을 떠나 마음의 평정을 요구하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무익한 기도는 입술 끝에서나 목줄기에서 솟아나는 이 소리는 무익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의 위함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 29:13 ; 15:8-9)⁶⁾

2. 기도의 두 부분

기도에는 두 부분이 있다.⁷⁾ 즉 간구와 감사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먼저는 그의 영광 돌릴 것만을 구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을 구한다.

감사로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모든 좋은 것들을 그의 선하심에 돌리는 것이다.⁸⁾

6) Inst., p.164.

7) 소요리 제98문에서는 간구와 감사이외에 “고백”을 보충하고 있다.

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림이요, 그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낙계, 소요리문답강해Ⅱ,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p.656.)

8) Inst., p.161.

1-1. 간구

우리 앞에서 기도의 규칙에서 합당한 기도의 양식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한 형식을 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구하도록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식탁 위에 베풀어 놓은 것처럼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그분의 이런 친절에서 우리는 위로의 큰 열매를 받게 된다.

a. 합당한 기도

우리가 그에게 구하도록 허락하신 것. 구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으로 세우사 그 공동체를 고려하신 것이어야 한다.⁹⁾ 이는 우리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이 공동체에 대한 주의를 잃어버린다고 그것을 빗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매사를 그것과 결부시키도록 해야 한다.¹⁰⁾

합당한 일을 하는데 형제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하신 아버지의 보호가 그들 위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섭리적인 보살핌 아래로 이끌어 주는 것)

형제간의 이런 일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힘입고 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전 가족을 사랑과 선의로 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가족, 그의 상속 물에 대하여 천

9) 언약의 한 지체로서 그 언약의 다른 지체에 대해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와 물질생활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는 보이는 교회를 가정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생활 감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너무나 유치한 상태입니다.(김홍전, 기도에 대하여, 성약출판사, 2000. p.197)

10) Inst., p.170

부에 대한 동일한 열정과 사랑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¹¹⁾

b.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탁월성들 안에서 기록하여지기를 비는 것이다.

그의 위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다시 말해 진정으로 인정되고 확장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거룩히 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일단 한번 받은 모든 일들을 그분과 연관시키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그의 은총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그의 백성을 보태사 그들이 모든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부요한 은혜를 부으사 날마다 그 은혜로 살고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바라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빛과 진리가 점점 더 밝히 비취어서 사탄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의 계시 속에서 마침내 완전해지고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¹²⁾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¹³⁾,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11) Inst., p.170.

12) Inst., p.173.

13)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1:4下) 칼빈은 바울의 의도가 하나님의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창조하사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을 소멸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겔 36:26)¹⁴⁾

c.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세상 요소 아래에서 (갈
4:3)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
어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하는 것
이며, 그의 보살핌과, 그의 섭리에 우리를 의탁하여 그가 우리를 먹이고
자라게 하고 보존하시도록 하는 것이다.¹⁵⁾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방자한 욕망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든, 우리를 대항해 싸움을 걸어오는 이 유혹들에 우리가 지
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¹⁶⁾

2-1. 감사

우리는 그토록 크고 풍성하게 쏟아 붓는 하나님의 은택에 거의 압도당했
고, 또 우리가 보는 곳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많고도 능력 큰 기적들
에 압도당해서,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를 위한 이유와 경우가 결코 같하
는 법이 없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부요는 하나님 안에 놓여 있어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결코 번창할 수

영광에 있다고 말하며, 보충하여 “우리가 선택 받은 최고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며, 그 다음 이차적인 목표는 우리의 성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무흠(無欠)함과 인간이 지닌 모든 미덕은 선택의 열매라는 결론을 짓게 된다”(존 칼빈,
칼빈 성 경 주 석 中 에베소서, 성서교제 간행사, p.261.)

14) Inst., p.174.

15) Inst., p.175.

16) Inst., p.179.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위탁하며 (약 4:11-15) 우리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의 손과 뜻 아래 도우심의 소망 아래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손으로부터 받되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야 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은택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 누리는 길은, 계속 그를 찬양하고 감사를 돌려 드리 는 길 외에는 없다.¹⁷⁾

3.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는 이에다가 우리 지선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강렬히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두 가지를 보태어 주신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명령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 받은 줄로 확신케 하는 그분의 약속인 것이다.

3-1.명령

하나님께서선 우리에게 매우 빈번하게 되풀이 되는 명령을 주신다. “찾으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내게로 돌이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등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십계명의 제 3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방식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신다 (눅

17) Inst., p.162.

11:9-13, 요 16:23-29, 마 7:7, 11:28, 눅 1:3, 시 50:15, 출 20:7).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이 금지명령은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덕이나 선이나 도움이나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다리는 중에 그에게 우리의 모든 신뢰를 돌림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그의 명령으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가 그에게로 피하여 가지 않으면, 그를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는 그의 화를 우리 위에 자초하는 일이며, 마치 이방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고 우상을 세우는 일과 같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의 뜻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다.¹⁸⁾

3-2. 약속

약속은 이런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마 7:7, 렘 29:13 이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사 65:24). “내가 너를 건지리라”(시 50:15, 91:2 이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내가 너희를 풍족히 먹이리라”(겔 34:14 이하)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아니 하리로다” (사 45:17)

모든 일 들이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의심 없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도 자체가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공로나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전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18) Inst., p.157.

우리가 기도하라 하시는 동일한 명령으로 무장되고, 또 응답받을 것이라는 동일한 약속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라서만 즉,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우리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¹⁹⁾

B. 칼빈의 기도핵심에 대한 발전 내용

1536년 판에서 우리는 칼빈에게 있는 중심내용을 발견한다. 그는 시대와 상황 속에 강요에 대한 의미를 보충할 때마다 1536년 판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중한데 이는 1536년 판은 밑그림과 같이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었으며 판이 나올 때마다 풍부한 내용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연구 할 가치가 있다.

1. 인간의 절망과 선한 것들에 대한 결핍

1536년 판에서 인간의 절망과.....에 대한 언급이 있는 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의 온 소망이 그분께 붙어 머무르도록 하셨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1536년 판에서 다른 그와 같은 내용이 1539년 판에서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하는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다. 또한 1543년 판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제시한다.

a. 기도의 필요성

19) Inst., p.157.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고 있는 보물에 우리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하나님께 기대해도 좋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파낸다고 하는 것²⁰⁾

b. 기도하는 여섯 가지 이유

- 가.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위해
- 나. 부끄러운 욕망,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 라. 구한 것을 얻고 응답해 주신 것에 확신으로 인자하심을 더욱 명상하기 위하여
- 마. 기도를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 바.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²¹⁾

c.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 (롬 10:14-17).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증거요, 인치는 영 즉 양자의 영이 (롬 8:15) 우리 정신을 고무시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롬 8:26), 아무 의심 없이 “아바, 아버지” 라고

2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III. xx. 2.(다음 각주에서 Ibid.라는 약자로 사용하게 됨)

21) Ibid., III. xx. 3.

부르게 한다. (롬 8:15)²²⁾

2. 올바른 기도

1536년판에서 올바른 기도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자기 영광을 위한 모든 고의 포기와 동시에 반면에 두렵고도 겸비한 자세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하고,²³⁾ 둘째로 우리 자신의 불충분함을 진정으로 자각하며, 셋째로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첫째로, 자기 영광을 위한 모든 고의 포기와 동시에 두렵고도 겸비한 자세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은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고 되어있다.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하려면....육적인 근심과 생각을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라”²⁴⁾ 1539년 판에서 보충되어서 합당한 기도를 시작한다.

칼빈은 1539년판에서 올바른 기도의 시작을 성령이 올바른 기도를 도우신다고 설명한다.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 주시며 감정을 조절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시고 라 함으로 성령이 올바른 기도를 도우심으로 보충하고 있다.²⁵⁾

또한 보충된 내용으로는 가. 자기의 의를 말할 것인가 나. 확신 있는 소망

22) Ibid., III. xx. 1.

23) Ibid., III. xx. 8.

24) Ibid., III. xx. 4.

25) Ibid., III. xx. 5.

을 가지고 기도하라. 다. 기도와 믿음 라. 믿음의 견고함

가. 자기의 의를 말할 것인가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고 믿는 그의 확신은 다만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자신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²⁶⁾

나.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에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한다. 확신이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어 감미롭고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성도들을 가장 잘 자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는 그들이 자기의 부족을 느껴 거의 미칠 듯하다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 위에 비쳐 마침내는 믿음으로 인해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곤란을 참을 수 있게 되며 위로를 얻으며 앞으로 곤란을 벗어나려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가 두 가지 감정에서 시작하며, 두 가지를 내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²⁷⁾

다. 기도와 믿음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일이다. 요약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롬10:14)²⁸⁾

26) Ibid., III. xx. 10.

27) Ibid., III. xx. 11.

라. 믿음의 견고함

믿음은 우리의 불행과 궁핍과 부정과 결합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²⁸⁾

둘째로, 우리가 자신의 불충분함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1539년 판에서 보충된 내용은 “인류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기도라는 행동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기원하는 때가 많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오리라고 확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졌다고 믿고 있다.³⁰⁾”

셋째로,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원동력이라는 것

경건 생활의 의무 중에서 기도처럼 성경에서 자주 명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쉽게 받아 주시면,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환영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것이다.³¹⁾라고 1543년 판에서 보충되어 다루어 지고 있다.

3. 대언자와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도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나 1539년 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충하고 있

28) Ibid., III. xx. 11.

29) Ibid., III. xx. 12.

30) Ibid., III. xx. 6.

31) Ibid., III. xx. 13

다. 이로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더욱 확고하게 선포하는 요절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요 16:26).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 13).³²⁾

4. 하나님께 부르짖는 규칙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규칙이 정해졌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리라고 약속한다. 참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예와 아멘을 찾는다.(고후 1:20)

1539년 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소개하며 보충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시는 자시니라”고 (롬 8:34)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딤후 2:5) 하며.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중보도 한분이시니” 라고 (딤후 2:5) 하였다.³³⁾

5. 성자 중보기도.

1539년 판에서는 지금 이른바 교황제도가 번창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짓, 이라고 한다. 칼빈은 초판에서 밝히지 않는 내용을 분명하게 “교황제도”라 함으로 악의 세력들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빈번히 성자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그들의 이

32) Ibid., III. xx. 18.

33) Ibid., III. xx. 20.

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며, 그들의 오류를 “참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요, 그런 때에 그것은 자체에 신앙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나 성자들의 중재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때 그들이 불안에 놀려 있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³⁴⁾

성자 기도에 관련하여 칼빈은 1539년판에서 네 문장의 주제를 보충한다.

가. 첫째는 성자숭배, 나. 성경해석의 오류, 다. 죽은 성자들은 지상의 근심 걱정과 관계하지 않음을, 라. 족장의 이름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가. 성자숭배 성자들의 중재를 생각하게 된 후로 사람들은 각 성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돌리고,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성자에게 또 어떤 때는 저 성자에게 중재를 기원한다.... 성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각.... 신성 모독적이고... 타락하게 된다.³⁵⁾

나. 성경해석의 오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중보기도의 기초는 성경의 권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도 헛수고일 뿐이다.³⁶⁾

다. 죽은 성자들은 지상의 근심 걱정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안식을 버리고 지상의 근심에 끌려 들이지는 않는다. 따라

34) Ibid., III. xx. 21.

35) Ibid., III. xx. 22.

36) Ibid., III. xx. 23.

서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³⁷⁾

라. 족장의 이름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자기 민족의 조상임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시조로서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려는 것이었다.³⁸⁾

6.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지속성은 각 사람의 개인기도에 관한 문제이다. 공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는 공 중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칼빈은 1536년 판에서 개인기도에 비중을 두고 글을 쓰고 있지만 1539년에는 공기도의 필요성, 위협성에 대하여 한 단락을 할애하며, 1536년 판의 글을 중심으로 보충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밝힌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자들의 공 기도를 명하시므로... 공 기도를 드릴 공공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하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꾸몄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³⁹⁾

37) Ibid., III. xx. 24.

38) Ibid., III. xx. 25.

39) Ibid., III. xx. 30 .

C. 기도의 실천적인 의미

기독교 강요의 초판의 전체적이고 특별한 성격은 근거 없이 그리고 재판석에서의 경청함이 없이 순수한 교리 때문에 대적자들의 강포에 의해서 폄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대적자들의 불과 칼에 대응하는 저항수단으로서 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알아야 할 것을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칼빈은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곤비한 죄인들일지라도 그들의 교리만은 세상의 모든 영광 위해 우뚝 설 것이고 모든 권세 위에서 승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에 의미를 찾는다면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성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 위에 행하시고 다스리어 그의 선하심과 자비의 부요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나타나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의 부요한 은혜를 부으사 그들이 날마다 그 은혜로 살고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바라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빛과 진리가 점점 더 밝히 비취어서 사탄과 그의 나라의 흑암과 오류가 소멸되고, 쫓겨나고, 불려가고 사라지기를 바

40) 김영규, 「기독교 강요 강독1」,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p.23.

라는 것이다.⁴¹⁾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삶의 모습에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삶으로서 간구의 바른 의미를 살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의무에 대하여 칼빈은 “마음 뿐 만 아니라 육체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때문”⁴²⁾이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죄 가운데 구원이며 아담으로부터 썩어질 것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원임을 기억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바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으로서 주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며 성도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다.

D. 칼빈의 주기도문 해설

1. 우리 아버지

41) Inst., p.173.

42)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가? 칼빈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로부터도 영광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기 때문이다.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p.49.)

우선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봉착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영예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참 아들이시지만 그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 위대한 복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양자로 삼으신 그 은혜에 의해 본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⁴³⁾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만 부를 수 있었던 것을 제자들도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제자들을 메시아의 특권적인 지위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⁴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를 대할 때에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이상으로 더 큰 사랑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 이상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사람의 선함과 자비를 초월하고 있듯이, 그의 사랑도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면 훌륭하다.

만일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잊으며 자녀들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시 27:10 ; 사 63:16참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딤후 2:13).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43) Ibid., III. xx.36.

44)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11.

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바 있다. 예언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 공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49:15).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빈곤이나 수단의 결핍이나 잔인성과 지나치게 엄격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현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비록 친절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매일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 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는 직접 애원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신음에 더욱 주목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직접 호소하라고 권고하신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비와 친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심에서 행하는 일이며, 거기에는 절망적인 심리의 흔적이 없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부하신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비유로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눅 15:11-32).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기대해야 할 사

45)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27.

량이 얼마나 더 풍부한가를 가르치신다. 그는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모든 아버지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다정한 아버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자신이 그러한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 당신은 자녀들에 대해서 풍성하고 위대한 애정을 품으셨고,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합니다. 이러하신 아버지를 가질 가치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당신께서는 우리를 향해 아버지로서의 애정만을 품으신 것을 확신하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자식들인 저희의 당신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⁴⁶⁾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보시고(마 6:6), 아신다(마6:8). 이것은 기도의 확신을 결정하는 말인 것이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참여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한다고 조병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⁴⁷⁾

그러나 우리의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자된 것을 보증하실 뿐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갈 4:6; 롬 8:15). 그러므로 어떤 주저하는 생각이 우리 앞을 막을 때마다. 우리는 이 공포심을 바로 잡아 주

46) Ibid., III. xx.37.

47) 하나님은 “보신다”(마 6:6).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보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서 눈을 떼지도 돌리지도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아신다”(마 6:8)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31)

시기를 청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지도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그 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아들의 권리를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도에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아야 한다.⁴⁹⁾

또한 우리가 받은 교훈은 각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들 사이에 큰 형제애가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준다. 왜냐하면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꼭 같은 권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아버지”는 이기적인 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기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⁵⁰⁾ 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되시며(마 23:9), 우리가 얻는 모든 좋은 것이 모두 그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때에는 얼마든지 기꺼이 또 진심으로 서로 나누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한 가족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과 가족과 그리고 그의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존중하셔서 독생자의 충만(엡 1:23)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가족 곧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들에 대해서(갈 6:10) 특

48)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28.

49)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30.

50)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19.

별한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확인하고, 깊이 느끼면서 나의 아버지요 또한 우리들 전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⁵¹⁾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밀접하게 계심을 나타내는 말이다.⁵²⁾ 그리고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형제가 된 것을 확인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만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라는 말을 써서 공동의 관심사와 수요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함께’ 내려 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도할 때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거기에 관련시키라는 뜻이다. 이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그 기도가 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공통된 기도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이(마 6:9)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울타리 안 같이 둥근 하늘 안에 둘러싸여 갇혀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단지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그가 어떤 특수한 공간 내에 갇히신 것이 아니고 만물에 편만하시다는 것이

51)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4.

52)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33.

다.⁵³⁾ 우리는 하늘 보다 더 숭고하서나 존엄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란 말로 그의 영광을 표시하게 되었다. 하늘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경험해 본 어떤 것이 아니, 우리의 이해를 넘어 선 새로운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다시 말해 그의 영광과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모든 곳은 어디나 하늘 일 수 있다.⁵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지각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분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하늘에 계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⁵⁵⁾, 구별되어 있음으로 거룩한 분⁵⁶⁾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그를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높인다. 끝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힘으로 우주 전체를 포용하시며 유지하시며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크시며, 또는 높으시며, 이해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셨으며, 무한한 위력을 가지셨으며, 영생불사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늘에 계시는”이란 말은 높고 숭엄하고 형언할 수 없이 순결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그리고 능력의 출처를 밝혀 주는 것으로 세상만사를 감찰할 수 있는 곳에 계시는다는 의미인 것이다.⁵⁷⁾ 또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과는 같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⁵⁸⁾ 그리고 이 사실은 우

53) Ibid., III. xx.40.

54)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26.

55)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4.

56) 같은 책., p.15.

57)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27.

58)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23.

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⁵⁹⁾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의 눈앞에서 그려 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온 우주가 그의 지배 하에 있으므로, 그리고 그는 기꺼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히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히 11:6).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주기도문 완성

2.첫째 기원

첫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다(마 6:9).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줄 때마다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⁶⁰⁾ 이 기원의 필요성은 우리의 큰 수치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비록 모든 불경한 사람들이 신성 모독적인 방자한 행위로 영광을 흐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거룩하게 빛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

59)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35.

60)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41.

으며”(시 48:10). 땅에서는 그의 거룩하심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으므로, 그것을 옹호할 힘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적어도 기도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⁶¹⁾ 이에 따르는 기도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멸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⁶²⁾

이 기도의 부분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제는 다만 그것의 완전한 성취만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⁶³⁾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⁶⁴⁾ 기도는 나의 요구가 아니라 기도의 첫째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유익보다 우선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다른 이름과는 관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될 때에, 거룩은 그 순수한 영광을 나타낸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격이다.⁶⁵⁾ 우리가 여기서 받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수호 하셔서 모든 경멸과 불경을

61) Ibid., III. xx.41.

62)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38.

63)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12.

64)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31.

65)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42.

물리치실 뿐 아니라, 전 인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만드시기를 기원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는 교훈으로, 또 일부는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므로 우리가 그를 거룩히 받드는 것도 이 두 가지 방면에서 그의 것을 그에게 돌리며, 따라서 그에게서 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또 그의 자비심뿐만 아니라 그의 엄격하심도 찬양해야 하며,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기원에는 다른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불신과 불경이 일소되며, 소멸되며, 거룩하게 받드는 일을 흐리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추방되며, 모든 모독 행위를 침묵시키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시게 되는 것이다.⁶⁶⁾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해 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름들의 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바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품인 것이다.⁶⁷⁾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⁶⁸⁾

66) Ibid., III. xx.41.

67)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40.

68)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요 17:6), “알게 하셨다”(요 17:26).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들로 살아야 한다.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470.

3. 둘째 기원

둘째 기원은 “나라이 임하시옵시며”라는 것이다(마 6:10).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거하는 모든 육의 정욕을 그의 영의 힘으로 바로 잡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도에 맞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써 나라를 세우신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니, 방자한 자들을 길들이시며, 길들일 수 없는 자들은 그 교만으로 꺾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 각지로부터 자기 앞으로 모으시도록, 교회와 교인의 수효를 늘리시도록, 교회에 각종 선물을 주시도록, 교회 사이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시도록, 그러나 순수한 교리와 경건의 원수들을 모두 타도하시도록, 그들의 계획과 노력을 분쇄 하시도록-이런 일들을 매일 기원해야 한다.⁶⁹⁾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뜻은 주권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Kingship”, 왕의 주권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킨다. 하지만 신령한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신들을 대적함이라”(엡 6:12)인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 나라에 도전한다. 이 세상 나라를 변화 시킬 것을 시도한다.⁷¹⁾ 이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부패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것인데 이 세상의 부패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번영

69) Ibid., III. xx.42.

70)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62.

71)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59.

하지 못하게 한다.⁷²⁾ 이 기도는 동시에 육(肉)을 죽이려는 열심을 일으켜야 한다.

끝으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의 의에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빛과 진리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내심으로써 사탄의 나라의 어두움과 거짓이 소멸되는 때에 이루어진다.

또한 ‘나라이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결함과 엄위,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람이 함부로 용훼하지 못하는 거룩한 법칙에 순종하여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큰 영광으로 알고 힘써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빛내고 그 나라를 빛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⁷³⁾

4. 셋째 기원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다(마 6:10).

이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다.⁷⁴⁾

72)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51.

73)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54.

74)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의 기뻐하심을 따라”(엡 1:5) 된 것이다.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61)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은밀한 뜻이 아니다. 사탄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렬히 대항할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실 뿐 만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이용하셔서 이미 결정하신 일을 실행하신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비교한 것이다. 시편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열심으로서 그의 명령을 이행한다(시 103:20).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며, 천사들도 완전히 평화롭고 공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상생활도 이런 표준을 따르며 모든 교만과 사악이 제거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다.⁷⁵⁾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위에 항상 명료하게 존재해야 하고 명료하게 그 권위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⁷⁶⁾

하늘에서는 홀로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뜻을 이루신다.⁷⁷⁾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⁷⁸⁾ 요한복음 6:38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지상에서 살았던 삶의 뜻이 진술되어 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로 하시는데 이것은 이 것이야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오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에게

75) Ibid., III. xx.43.

76)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67.

77)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p.63.

78)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77.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⁷⁹⁾ 예수님은 그의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원이 있었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의 뜻에 안간힘을 써서 대항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심령을 창조 하시도록(시 51:10)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모순 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허망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지 아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어떤 차이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이라면 기도로서 특별한 의미를 안 갖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 때 비로소 기도가 큰 은혜의 방도요 은혜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권과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⁸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묘한 은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도와 조화되어서 동시 발생(concurrence)의 사실을 일으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일 때 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조화된 기도 응답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79)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81.

80)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69.

첫째 주기도문 부분의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의 처음 세 기원을 보았다. 이 기원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고, 자신이나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기원하는 일들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아도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하고 구해야 한다. 이렇게 기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열렬하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맹세를 한 종과 자녀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5. 넷째 기원

다음에 있는 둘째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에 관계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구하지는 않는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처음 세 기원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전적으로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신다. 그 다음에야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도록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모두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죽는 것 보다 더 합당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롬 17:7-9).⁸¹⁾

“일용할 양식”은 과거에는 날마다 먹는 것, 영어로는 그냥 “our daily bread.” 라고 표시되어 있고 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떡(음식)”에 대해서 말을 했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개념을 좀 넓혀서 세

81) Ibid., III. xx.44.

가지의 일용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⁸²⁾ 결국 이 기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과 의복 뿐 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구하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육신과 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며 제자들에게는 땅의 양식 모두가 메시아 날의 식사에 미리 참여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⁸³⁾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일임하여 그가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다. 우리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 까지도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로 믿음을 실천하게 하신다. 자기의 생존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대상은 그가 섬기는 이요 위해서 사는 이인 것이다. ⁸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솔직한 자기 상황에 대한 정당한 고백인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초실체(招實體)”적인 빵에 대해서(마 6:11) 철학적으로 논하고 있으나,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이 당연한데, 땅의 근심걱정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 일에 끌어넣는다는 것은 합당치

82)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찌 떡 뿐이겠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은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떡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친구나 좋은 반려자, 좋은 책과 같은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가 또 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88)

83)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12.

84)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90.

못하다고 한다. 죄의 용서가 신체의 영양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것을 앞에 두셔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남은 두 가지 기원으로-천상생활에 속하는 기원으로-인도하시고자 하셨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고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오늘”, 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과 같이, “날마다”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형용사는, 곧 없어질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욕망을 억제한다. 우리는 소유가 필요 이상으로 풍부할 때에는 쾌락과 오락과 허식과 기타 사치에 허비한다. 그러므로 그날그날 쓰기에 충분 할 정도로만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에 필요한 것만을 기원해야 한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까지도 주께서 시간마다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신 8:3; 마 4:4)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⁸⁵⁾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되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칙 하에서 나에게 내리신다고 믿고 구하는 것이다.⁸⁶⁾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권리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신 8:18참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가 정당하고 무해한 노고에 의해서 얻은 것은 우리 것이라고 부르지만, 사취(詐取)한 것과 강탈한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든 간에, 우리 자신의 기술

85) Ibid., III. xx.44.

86) 김홍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02.

과 근면과 손으로 얻은 것 같이 보이는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수고가 참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뿐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 앞에 붙어 있는 “우리에게”라는 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리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⁸⁷⁾ “가난한 이웃”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6.다섯째 기원

다음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한다(마 6:12).

이 기원과 다음 기원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약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선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곧 이어 둘째 은혜를 첨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며, 우리가 모든 시험에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⁸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빛”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께 행해야 할 의무를 잘못 이행했다는 점에서 ‘빛’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뜻에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⁸⁹⁾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를 하시되 ‘절대의 의’로는 티끌 끝만 한 죄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반드시 토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우리

87)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90.

88) Ibid., III. xx.45.

89)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102.

는 우리 자신이 감당 할 수 없는 이 무서운 토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바, 예수님 당신의 모든 존재의 확실한 사실들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공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만족을 드리는 동시에 또한 용서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⁹⁰⁾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빛을 만족하게 치룰 수 없는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온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빛들을 너그럽게 탕감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비로 스스로 만족을 거두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놓아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롬 3:24참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치시며 죄인만을 받아주신다. 우리는 아침하는 말로써가 아니라 모든 세밀한 의무까지도 이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 오점이 없는 순결함을 진심으로 기뻐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일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그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육에는 항상 다소의 오점이 남아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었다.⁹¹⁾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빛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받기를 기원한다(마 6:12).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사 43:25 참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버리고, 부당한 처사를 기꺼이 말끔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현재 우리를 해하거나 이미 해한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90)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07.

91) Ibid., III. xx.45.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사죄 축복은 우리에게 더 풍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일 것이고, 우리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⁹²⁾ 참으로, 이 기도의 뜻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간구가 의미 하는 바는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 속죄 주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공활을 우리 형제에게 돌려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의 선물인 당신의 용서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뻗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 여기서 용서하옵소서” 하는 뜻이다. ⁹³⁾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조건을 붙인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니 우리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마치 우리가 받을 용서의 이유가 있음을 말 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미움과 시기와 복수심을 깨끗이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남을 용서해 준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 만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한 표로 첨가하신 것이다. 실제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 하는 것이다.⁹⁴⁾ 이 표의 또 다른 의도는, 주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시려는 것이다.⁹⁵⁾ 즉, 복수심이 강렬하고 용서하

92)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109.

93)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1990, p.12.

94)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17.

는 마음이 약하여 항상 적의를 품고 행동하며, 자기들에게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조장하는 사람들을 자녀들 가
운데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7. 여섯째 기원

여섯째 기원은(마 6:13),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
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응하는 것이다(잠 3:3; 고후 3:3). 이 기원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는데 필요한 무장을 갖추며 보호를 받기를 추구한다. 이
기원에서 우리가 받는 지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
라,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일을 위한 기
도인 것이고, 다음 시간을 위한 기도인 것이다. 아직 내게 당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기도인 것이다. 96)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굽히시며 지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움은 사탄의 모든
전술과 모든 맹공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
서 필요하다. 그런데 시험의 모양은 각양각색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시험이다. 또한 그 자체로서는 악하지 않은 것들도 마귀의
간계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에, 시
험이 된다(약 1:2, 14; 마 4:1, 3; 살전 3:5).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때때로 받고 또 거기에 빠지는 일도 많고 그로
말미암아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세월을 보내는 일도 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피야 할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바로 시험인 것이
다. 97) 우리의 육욕이 일으키거나 혹은 마귀의 간계에 의해서 제시되는 두

95) Ibid., III. xx.45.

96)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118.

가지 시험과 싸워 굴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든 간에 그 악한 적들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굳세게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⁹⁸⁾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 전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분발하도록 자극을 받으며 시험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 활동하지 않아서 태만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은 서로 다르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여 멸망시키며 정죄하며 혼란을 빠뜨리며 낙심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연단시키심으로써 그들의 성실을 시험하시며,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확실하게 만드신다. 그 뿐 아니라, 사탄은 무장과 준비가 없는 사람을 습격해서 불시에 타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동시에 벗어날 길도 마련하시며, 그가 가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이 꾸준히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전 10:13; 뱀후 2:9).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중성으로 받아서 ‘악에서’라고 표현 했지만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실체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사단은 이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⁹⁹⁾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대한 용사인 마귀와 싸우는 것이나, 그의 힘과 공격을 견디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97)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30.

98) Ibid., III. xx.46.

99)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121.

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시 60:12, 시 107:14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굳세게 서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약한 육을 완전히 버리기까지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풍부하게 내리고 더하기를 기대한다.¹⁰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 앞에 어떤 시험도 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햇볕이 뿌리가 있는 싹에는 장성하기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듯이 이 세상의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참 소망을 소유하게 할 뿐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¹⁰¹⁾ 이런 기도를 하고 난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분별 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시험인 것이 판별이 되었다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8. 칼빈의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기원은 우리가 전에 말한 점을 분명히 알려 준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공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교회 일반의 덕을 세우며 신자 상호간의 교제

100) Ibid., III. xx.46.

101) 김홍전, 「주기도문 강해」, 성약, p.138.

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양식과 죄의 용서를 얻으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한다.¹⁰²⁾

그 뿐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기원하며 받으리라고 확신해야 할 이유가 첨가되어 있다.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의 것이라고 하였다(마 6:13).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하고도 평온한 안식처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비록 가련하고, 무엇보다도 무가치한 것들이며, 아무 칭찬할 점도 없는 자들이지만, 언제나 기도할 이유가 있으며,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아버지께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 올려 드리는 권세는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참된 권세이다.¹⁰³⁾ 이 권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오늘도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⁴⁾

끝에 가서 “아멘”이란 말이 첨가되었다(마 6:13).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고 싶다는 열의를 표명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실현되었고, 속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앞으로도 반드시 모두 실현되리라는 우리의 소망이 강화된다. 또 이런 소망은 우리가 전에 제시한 기도 형식과 일치한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단 9:18-19). 이런 말에서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기도를 들어 주실 이유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102) Ibid., III. xx.47.

103)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1990, p.143

104) (엡1:19-20) “네 속에 역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권세이다 성도들아”

그런 목적을 얻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도 오로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III 결 론

지금까지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칼빈에 따르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의 기도의 이해를 통하여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 일체의 선을 그로부터 찾고 발견해야 됨을 배우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복된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경애에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먼저 마음자체가 모든 오물들의 구덩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나열하여야 될 것이다.¹⁰⁵⁾

은혜의 풍성은 죄악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자기 백성을 기업으로 선택하심으로 “때가 차매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이제 이 경륜의 때에 전 인류로부터 그가 영원 전부터 택하신 교회

105) 로마서1장23절에서 인간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그들은 그들의 정욕적이고 육감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상상해냈기 때문에, 그들이 참 하나님을 인식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가공적인 새 신, 아니 오히려 허깨비를 고안해 냈던 것이다” (존 칼빈, 칼빈 성 경 주 석 中로마서, 신복윤 외 공역, 성서교제 간행사, 1978, p.63.)

를 모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마지막 까지 그들을 보전하신다. 주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창조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다.....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¹⁰⁶⁾”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구하고 찾는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 밖에서는 아무 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사55:8)고 한 선지자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항상 그에게서 배우고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있으며 “참된 신앙은 무지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는 것이다¹⁰⁷⁾” 그에 대한 앞에 대하여 칼빈은 신(神)지식(Cognitio Dei)이 경건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지적하였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신지식의 열매요 경건의 증거이다.¹⁰⁸⁾ 우리에게 모든 선의 원천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요성 없이는 그에게 있는 부요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이시며 공포와 위협 가운데 그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위로 자가 되신다.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나아가 참 안식을 얻으며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것이다.

또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도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에 예배의 회복에 있고,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106) H. Bavinck,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p.276.

107) 김영규, 「기독교 강요 강독1」,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p.34.

108)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p27.

의미에서 성도의 삶 속에 일체의 선을 그로부터 구하고 받는 것을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지를 정리하면, 칼빈의 기도 이해는, 기도에 대한 규칙을 제시함으로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모든 선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로 겸손과 유익, 겸손은 거룩히 됨을 열정적으로 목말라 하며, 우리자신의 무지를 인식함으로 얻는 유익이다. 셋째는 기도의 은밀함에 대하여 기도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한다는 것으로 합당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도에 있어서 크게 간구와 감사로 나누어 보았다. 간구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에게 구하도록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식탁위에 베풀어 놓은 것처럼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또한 감사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택에 압도당하여 우리가 보는 곳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많고도 능력 큰 기적들에 압도당해서,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를 위한 이유와 경우가 결코 갈하는 법이 없다.

또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강렬히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두 가지를 보태어 주신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명령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 받은 줄로 확신케 하는 그분의 약속인 것이다.

참고 문헌

I. 1차 자료

1. 외국어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2. 우리말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_____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上, 中, 下권),

김종흡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_____ , 「칼빈 성경주석」 신복윤 외 공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8.

II. 2차 자료

1. 외국어

Bavinck, Herman, *Our Reasonable Faith* trans, Henry Zyl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Heppe, Heinric, *Reformed Dogmatics*, English translation by G. T. Thoms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2. 우리말

Bavinck, H,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_____,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_____,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Calvin, John, 「에베소서 설교 상, 하권」,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1.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_____, 「기독교 강요선」, 이종성역, 서울: 기독교의회 1981.

_____, 「칼빈의 성경관」, 편집부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벌코프, 「조직신학 上 .下」, 권수경의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E. J. Young, 「창세기1-3장강의」, 서세일 역, 서울: 한국로고스 1993.

Heppe, Heinrich, 「개혁과 정통 교의학1」, 이정석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제임스 B.그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요한 크리소스톰, 「로마서 강해」, 송종섭 역, 서울: 지평서원 1990.

필립 홀트롭,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외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1」,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_____, 「기독교 강요 강독1」,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_____, 「교회론과 종말」,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_____,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_____, 「17세기 개혁신학」,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8.

김홍전, 「기도에 대하여」, 성약출판사 2000.

_____,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서울: 성약 1997.

_____, 「주기도문 강해」, 서울: 성약 2000.

조병수,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주기도문 해설)」, 하나 2000.

황승룡, 「조직신학 상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홍정길, 「주기도문 강해」, 새순출판사 1990.

최낙재, 「소요리문답강해 I, I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III. 논문

김남진,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의 입장에서 S. Ferguson의 성령론 비판”, (안양대신학대학원, Th. M 논문, 2002).

안영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90).